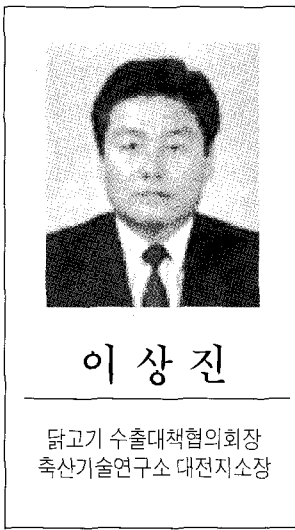


### 수출산업 육성만이 육계산업 살린다

우리 나라의 육계산업은 사육수수의 증가는 물론 경영규모의 확대, 계열화 생산체계의 정착 등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무역장벽의 철폐로 닭고기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국내 시장체제 고수만으로는 외국과의 경쟁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나라 육계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산성향상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수입닭고기의 국내시장 잠식을 억제하고, 나아가 세계 최대 닭고기 수입국인 일본시장에 우리가 생산한 닭고기를 수출해야만 하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과 위생적인 처리가 선행되어 가격 및 품질경쟁에서 외국수입품에 이겨야 하며, 일본의 육계산업을 정



이상진

닭고기 수출대책협의회장  
 축산기술연구소 대전지소장

확히 파악하고 시장요구에 합당한 상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공식활동을 시작한 『닭고기 수출대책협의회』의 활동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생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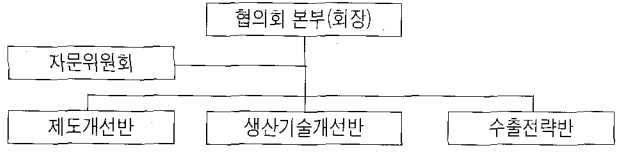
수출대책협의회는 3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주요 임무는 첫째, 제도개선반에서는 수출과 관련된 법령 및 각종 제도개선에 의한 생산비 절감 방안 수립, 둘째 생산기술개선반에서는 수출규격품 생산기술 및 가공처리에 관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셋째 수출전략반에서는 마케팅 전략 및 홍보정책 수립, 실제수출

등을 담당하게 된다. 각 반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긴밀히 협조하여 협의회가 운영되게 된다.

협의회 운영체제는 각 반에서 조사, 연구내용 발표 및 현안사항 토론에 의하여 시행안이 도출되게 되면, 시행안을 자문위원단을 포함한 전체회의를 거쳐 검토 및 토론에 의하여 최종안을 도출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건의가 이루어져 시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육계산업은 이제 외국에서 수입되는 닭고기의 방어판으로는 건디어 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을 명심하여 국내 육계산업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각계에서 힘을 모아 한 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산업을 반석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협의회 구성 및 반편성



●사업 추진체계

